

※2016년 5월 12일※

5월치고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씨

지난 밤에, 촬영과 업로드를 담당하고 있는 강의의 영상을 편집 및 인코딩한 후에 강의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 YouTube에 업로드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웠다. 바로 잠들지는 못하고 1시간동안 20년이 넘은 잠버릇, 소설을 쓰다가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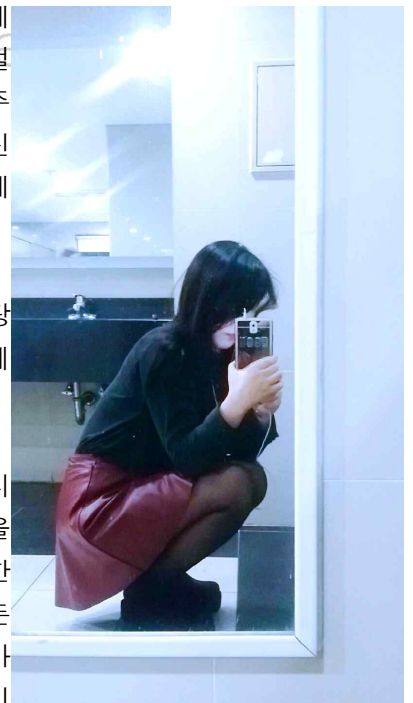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났다. 룸메이트와 세면시간을 겹치지 않게 위해 먼저 일어나서 욕실로 들어갔다. 상쾌한 샤워를 위해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했다. 샤워를 마친 후에 바디로션을 바르는 일은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다. 엄마가 '여자는 피부가 고와야 하니까 매일 샤워 후에 바디로션을 꼭 발라야 해.'라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전 8시 10분부터 노트북을 켜서 최근에 즐겨듣는 아일랜드 밴드 Funeral Suits의 앨범들을 재생하면서 화장을 시작했다. 화장은 언제나 즐겁다. 심심한 얼굴에 원하는 컬러들과 화장품들의 조합으로 그리는 그림은,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이다. 최근에 즐겨하는 눈화장은 MAC의 SHALE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VDL의 SMOG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한 후에, VDL의 MARSALA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VDL의 JALISCO JAM 컬러로 반짝이 포인트까지 주었다. 그러면서 Funeral Suits의 All those friendly people과 Troye Sivan의 Suburbia 두 곡만을 반복재생하였다.

오전 9시에 화장을 마치고 머리카락을 말리고 앞머리를 정리한 후에 엄마가 물려준(?) 버건디색 플레어 스커트에 먹색 셔츠를 입었다. 한나젤 가랑 일하는 날엔 슬리퍼형의 신발을 신는 게 다리와 몸에 피로를 덜 주기 때문에 이 신발에 어울리는 나뭇의 코디네이션을 했다. 엄마가 주신 플레어 스커트는 내 허리 사이즈에 비해 매우 크지만 좋아하는 색깔에 엄마가 입던 옷을 주셨다는 것이 좋아서 가끔 입는다.

오전 9시 35분에 기숙사 방에서 나와, 대학원 교학팀을 방문해서 담당 교수님의 우편물을 찾아왔다. 이 학교에 다니면서 단골이 된 CNN 카페에 가서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해서 연구원으로 출근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지난 업무에 이어서 업무를 했다. 업무 중에 또 다시 오류를 발견하고 새 작전(?)을 세워서 수정했다. 타인이 오류낸 작업들을 수정하는 일은 버겁고 괴롭다. 몇 주 전부터 연구원 선생님께서 다양한 노래를 틀어주시곤 하는데, 그게 기분 좋게 힘이 된다. 난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를 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게다가 나오는 노래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혹은 내 취향과 비슷한 노래들이라서 더욱 즐겁다.



오전 11시 40분 즈음에 점심식사를 하러 외출했다. 오늘의 메뉴는 혼자서도 종종 찾아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쌀국수. 식사를 기다리면서 연구원 선생님과 아이돌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선생님이 '개미지옥'을 겪으셨다고. 알고보니 나도 한때 좋아했었던 일본의 대형 연예 소속사 쟈니스의 멤버들 이야기였다. 벌써 십여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정말 개미지옥이었다.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돌의 늪. 그러다가 이후에 엄청 멋진 사람에게 반해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어졌다. 여튼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맛있는 요리에 홀려(?) 대화는 중단되었고, 식사에 집중하였다. 맛있게 쌀국수를 먹고 난 후, 세일기간이라고 광고 메세지를 보내왔던 이니스프리에 들어서 신나게 쇼핑을 했다. 클렌징 티슈, 네일 파일, 발 버퍼, 필링제, 하이드로겔 마스크 4장, 네일 데코 스티커를 샀다. 할 인율이 꽤 높아서 26,500원치를 16,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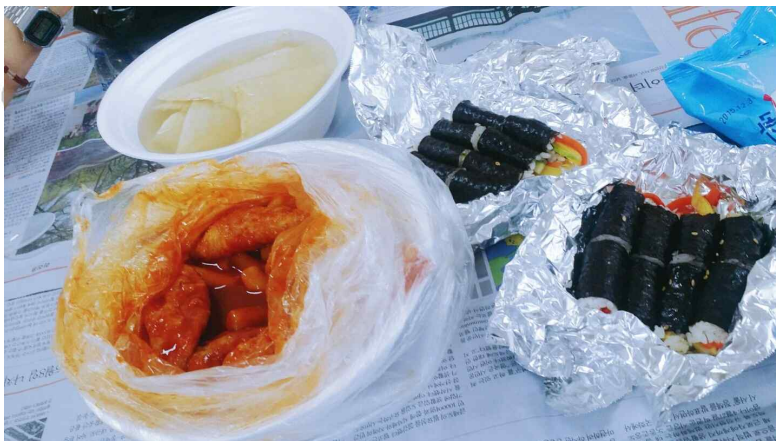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기존에 쓰던 필링제가 바닥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청보리 필링제를 고르고, 네일 아트에 필요한 네일 파일과 데코 스티커를, 매일 화장하는 얼굴 피부를 위해 팩을, 여행용 대비로 클렌징 티슈를, 최근에 생긴 발바닥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버퍼를 구매했다. 갑자기 발바닥이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겨서 버퍼를 구매했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노화의 증거라고 하셨다. 스물다섯에 노화라니. 어쩐지 내 나이가 영 어린 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조금 충격이다. 보들보들한 피부를 가꾸라던 엄마 말씀 앞에 부끄럽게 되었다.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분은 좋다.



오후 2시가 되자, 오늘은 오후 출근을 하시는 연구원 선생님이 출근을 하셨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물을 마시니 몸에 좋은 변화가 있다고 오시자마자 물병에 물을 받아놓으셨다. 나도 책상 위에 둔 1.5리터 물병에 물을 한가득 채워놓았지만 오늘은 아침에 산 카페라떼를 마시느라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다.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올해 초부터이다. 몇몇 생활습관을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해서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는데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2주전에 서지와 함께 구마네 집에 놀러갔다. 조금 지났지만 각자 바쁘게 지내느라 못 챙긴 구마의 생일을 챙기기 위하여. 하루 자고 가는 우리들을 위해 구마가 다음날 밥을 해주겠다하여 셋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다. 마트를 나오는 길에 뿌셔뿌셔 라는 과자를 쳐다보는 나에게 구마가 혼을 냈다. “너는 손 심심한 거 못 참아서 자꾸 과자먹지. 저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짜고 자극적이어서 몸도 자꾸 부어. 쳐다보지 말고 얼른 와.” 라고. 구마는 언제나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를 알려주는 친구인데, 이번 잔소리는 나도 꽤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습관을 고치기로 했다. 신년계획 중 하나였던 하루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간식끊기. 그래서 2주전부터 하루에 최소한 1.5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하고, 간식을 끊고 심심함을 대신하기 위해 껌을 씹고 있다. 2주동안 해 본 결과, 물 마시는 건 너무나 힘이 들고 껌을 오래 씹으니 턱과 골이 아

프다. 오늘은 물맛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사온 발포 마그네슘을 물에 넣어 마셨다. 그래도 여전히 물 마시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도 1리터는 남은 것 같다. 큰일이다. 아빠가 30년지기 친구분들한테 담배냄새 때문에 혼난 뒤에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셨을 때,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절친한 친구한테 혼나는 게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무섭고 끔찍하다니.

오후 3시 3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에 관한 라디오 토막 홍보를 들었다. 연구원 선생님께서 직접 녹음을 하셨는데, 잔잔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가 라디오 방송에 굉장히 잘 어울렸다. 뭔가 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이 이벤트에도 어울리는 목소리. 아주 어릴 때, 아마 7살쯤부터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했던 나로서는 매우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선생님 목소리에 비하면 내 목소리는 허스키하고 탁한 느낌이랄까. 분명 거기엔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타인이 듣는 내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긴 하겠지만 말이다. 서울에 와서 대체로 표준어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투리 쓸 때 만큼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튼 내 목소리가 내가 좋아하는 맑은 목소리가 아님은 확실하다. 안타깝게도.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벤트 안내가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나도, 연구원 선생님들도 출출해졌다.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기로 하고 사다리 타기 게임을 했다. 내가 1등을 했다. 1등이기 때문에 간식비를 가장 많이 냈다. 떡볶이를 사러 갔던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 이번에 같이 인턴을 하고 있는 동기오빠도 같이 왔다.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오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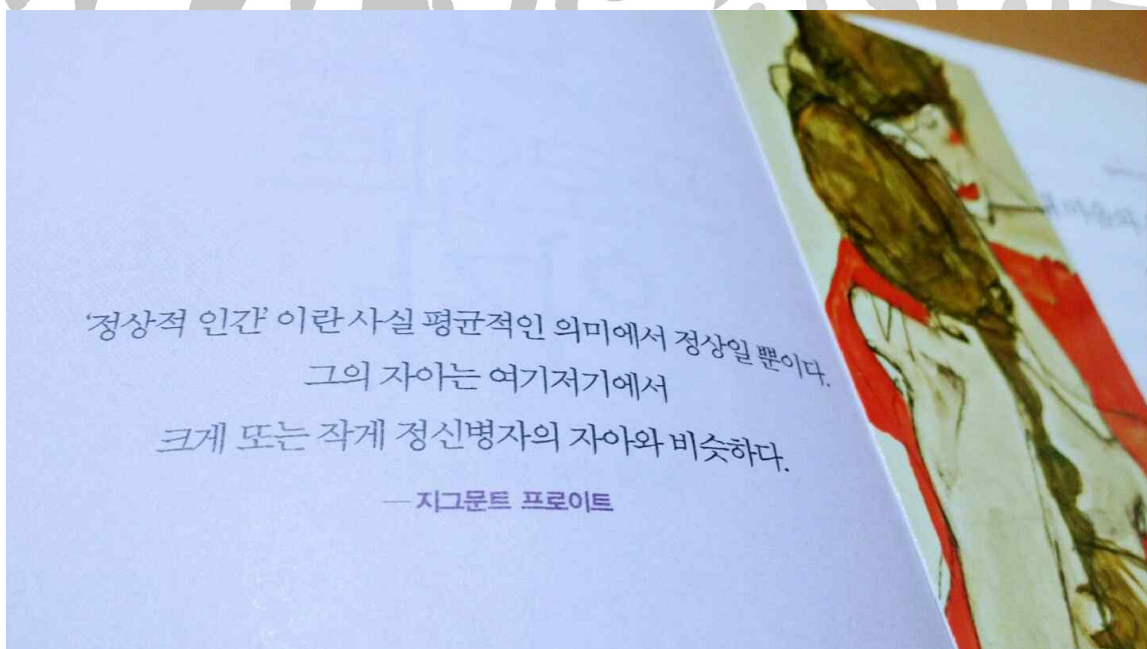
다고 했다. 보통 이렇게 넷이 맛있는 걸 먹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근래에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 넷이 모여서 먹은 건 꽤 오랜만인 기분이었다. 명지대에서도 소문난 ‘엄마손 떡볶이’는 울산대 후배가 이 근처에 살아서 내가 명지대 간다고 했을 때부터 서울가면 꼭 먹으라고 했던 분식이었다. 정말 떡볶이가 내 입맛에 잘 맞았다. 귀차니즘을 이길 수 있다면 종종 사 먹을 것 같다.

오후 6시 20분이 조금 넘어서야 퇴근을 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여전히 방콕 중인 룸메가 날 맞이해 주고 나도 늘 그렇듯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한 후에 잠시 침대에 누워 쉬었다. 하지만 금방 일어나서 아까운 이 시간에 책을 마저 읽었다. 일주일 전쯤에 E-book으로 빌렸던 ‘프로이트의 의자’를 어제서야 종이책으로 대출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읽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다. 이 책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쉽게 풀어 쓴 책이다.

프로이트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미술 책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설명할 때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이론이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난 달리보다

는 르네 마그리트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무의식의 세계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매우 흥미로웠다. 중학교 3학년 미술시간에 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살바도르 달리를 흉내낸 그림을 그렸고, 나는 르네 마그리트의 '전혀 다른 두 사물의 미묘한 조합'을 흉내내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책 표지에 나오는 나무 이미지와 영화배우 주드 로의 얼굴을 합성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나 음악에는 전혀 소질 없던 내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땐 미술선생님께서 매우 좋은 칭찬을 해주셨고 내 그림은 학교 축제 때 전시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엔 달리보다 마그리트를 더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잠깐의 회상.

대학생이 된 후에, 21살 가을이었다. 계속해서 짝사랑에 실패하고 날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같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극도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왜 나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지도 모르겠고 대인관계에서도 회의감이 들어서 거의 매일 울었다. 친한 친구가 그런 나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자신이 '정신위생'이라는 교양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라며 내게 '에니어그램 테스트'와 '프로이트의 의자'를 권해주었다.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하고 내가 나의 성향과 직접 마주하게 되니 신기하게도 자존감이 조금씩 다시 차올랐다. 그래서 추천받은 책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읽지 않았었다. 2년 후, 교양시간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직접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결혼과 가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강의들을 들으면서 프로이트의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게 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이론들이었는데, 시험을 위해 내용을 외우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에곤 실레에 무척 빠지게 되면서 실레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프로이트에 관한 여러 책을 대출하고, 대출중이었던 이 책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E-book으로 읽게 되었다. 요즘 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꽤 많이 읽었다. 줄거리는, 프로이트가 연구한 의식-전의식-무의식을 논한 지형이론, 이드-자아-초자아를 논한 구조이론, 리비도와 타나토스 등 정신분석학을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풀어쓴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해왔던 행동과 고민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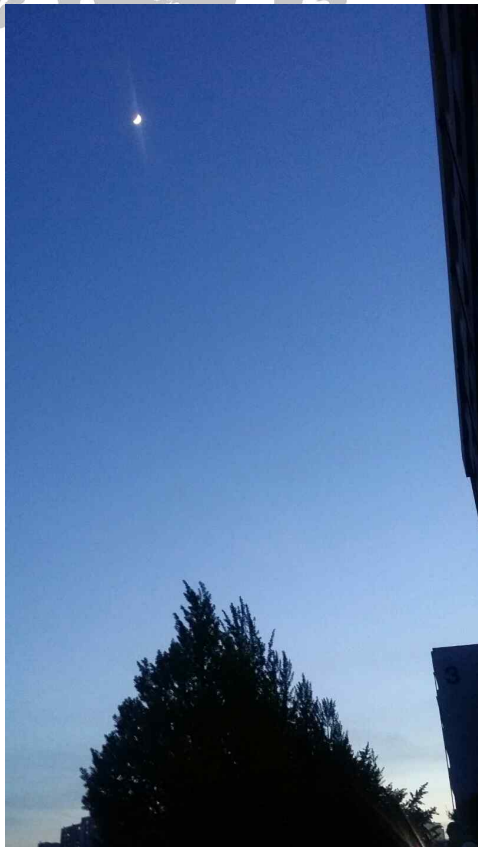
평범한 것이 되어서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인지 책을 여는 페이지에서 프로이트가 했다는 '정신적 인간이란 사실 평균적인 의미에서 정상일 뿐이다. 그의 자아는 여기저기에서 크게 또는 작게 정신병자의 자아와 비슷하다' 라는 말이 매우 인상깊다.

여튼 잠깐이나마 책을 읽고 저녁에 있을 수업에 갈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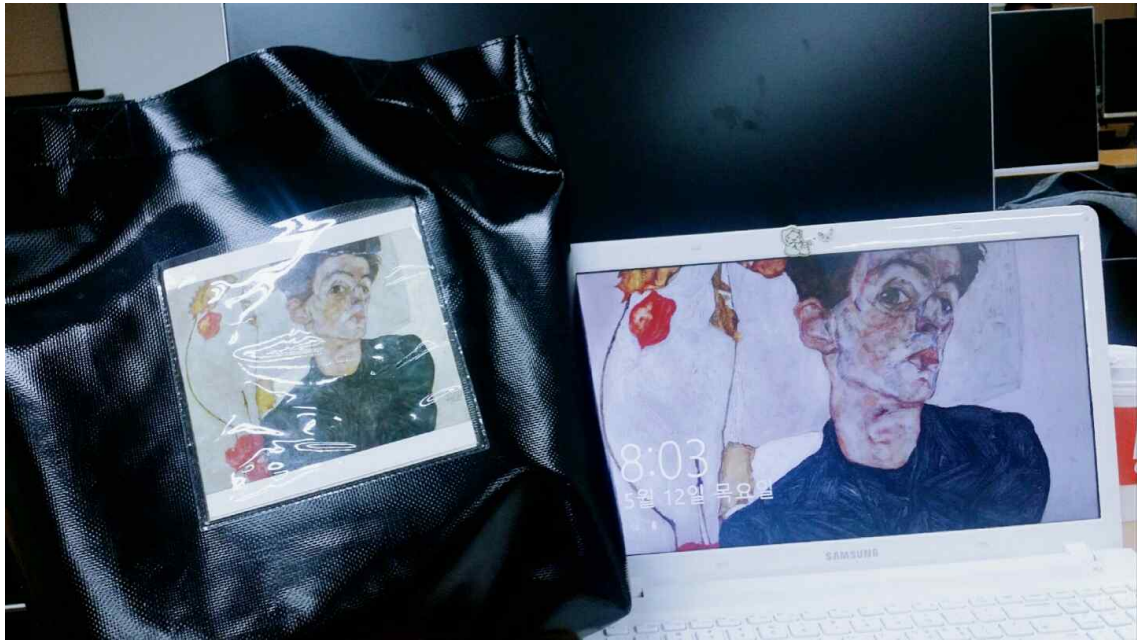
오후 7시 40분이 넘어서 기숙사 방을 나왔다. 피곤했던 나는 또 CNN 카페에 가서 샷 추가를 한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아침에 주문했을 때 여자 분이 만들어 준 카페라떼에는 라떼아트가 없었는데 저녁에 오니 남자 분이 만들어 준 카페라떼에는 앙증맞은 라떼아트가 있어서 기분 좋다. 카페에 앉아서 잠시 수업교재를 봤다. 컴퓨터 다루는

것에 약한 인문계 사람들이 주로 모인 이 전공에서 살아남기 위해 PHP 연구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내일 저녁 연구반 모임 때, 내가 속한 1조의 발표가 있어서 수업 전에 조 회의를 하기로 했다.



정말 잠깐 보고서 책을 덮고 카페를 나왔다. 일몰 즈음의 하늘은 눈 부실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색감의 하늘은 내가 좋아하는 쪽빛을 내는 하늘. 일출 전, 일몰 전에 잠깐 보이는 쪽빛 하늘이다. 하늘에서 염치없이 오래 놀고 있는 해와 눈치없이 빨리 나온 달이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 평소에도 바보같은 정도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나지만, 이런 재밌는 장면은 언제봐도 좋다.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갔을 때 동영상을 찍는 재미를 익혀왔다. 그래서 올해엔 동영상으로 촬영한 장면들이 꽤 많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어울리는 곡을 골라서 합성하는 취미같은 것이 생겼다. 나무와 하늘, 그리고 달을 찍은 이 동영상에는 실내악 밴드인 Rachel's의 연주곡 Egon&Edith를 삽입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 에곤 실레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밴드인데, 이 곡이 실린 Music For Egon Schiele는 에곤 실레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좋아하는 나뭇의 명반이다. 심지어 파스텔 뮤직의 해외 음반 라이선스 작업에 순풍을 가져다 준 앨범이라고 할 정도다. 이 곡의 도입부가 내가 찍은 영상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삽입해 보았다. 내 발

걸음에 따라 흔들리는 영상의 화면이 연주(첼로? 퍼커션?)와 싱크로율이 잘 맞는 느낌이다. 곡만 보면 이렇게 발랄한 느낌일 순 없지만 말이다.



오후 8시가 되기 전, 강의실에 먼저 도착해서 곧 있을 연구반 조모임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중에 내가 아끼는 가방과 노트북 화면을 촬영해 보았다. 여기도 에곤 실레가 가득하다.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무제움에서 사온 플라스틱 백은 매우 유용하다. 가방 가운데에 원하는 엽서 혹은 그림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처음 살 때는 에곤 실레의 뮤즈였던 발리 노이칠의 초상화 엽서가 꽃혀 있었다. 난 주로 에곤 실레의 자화상을 넣어 다닌다. 빈에 가서 직접 저 자화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울컥했던지..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고 화가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에곤 실레의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쉽다.

모임 시간이 되어서 조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빠르게 발표내용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었다. 나는 조원이 PPT 초안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PPT를 수정해서 발표 조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오후 8시 20분이 넘어서, 강의가 시작되었다. 너무나 어려운 수업이다. 학기 초반엔 적극적으로 예습을 해서 얼마간은 수업이 재밌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보니 전처럼 예습할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곤 한다. 컴퓨터를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약한 분야라서 더욱 집중해야함이 맞는데, 수업 진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적당히 정신이 돌아올 때 진도를 바짝 쫓아가곤 한다.

오후 9시 25분, 뉘놓고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다. 모처럼 엄마한테 전화했다. 사실 월요일까지 보고 온 엄마지만, 내가 워낙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다보니 서운하다는 말을 종종 듣기 때문이다. 지난 연휴에 집에 내려가서 안 사실로는, 2주전에 내가 한창 바쁘고 정신없어서 엄마께 전화나 카톡도 드리지 않았을 때, 웬일인지 이삼일에 한 번씩 오던 엄마의 연락이 없었는데 그때 엄마가 무릎 통증과 몸살이 심해서 전화할 힘이 없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불효녀는 엄마 앞에서 또 울 뻔했다. 가족들 에겐 살갑고 애교를 잘 부리는 막내이고, 친구들에겐 털털하고 정 많은 친구이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같은 것을 먼저 하는 일이 워낙에 없는 나다. 그래서 신년계획 중에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두세번은 연락하기'를 적어두었지만 역시나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은 생각난 만큼 바로 실행에 옮겨 엄마께 안부전화를 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는 다음으로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지난 어버이날에 전화를 드린다는 것을 깜빡하여 3주전에 뵈고 온 뒤로 연락을 못 드렸다. 좀 늦은 시각이었지만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 다음으로 아빠께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15일에 탁구동호회 시합이 있다고 했는데 동호회 회장인 아빠는 또 탁구장에서 바쁘신게 틀림없다. 그렇게 아쉽지만 뿌듯한 전화통화를 끝내고 강의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갈 즈음에 내일 있을 강의의 수강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의 과제였던 AtoM, Omeka 설치 때문이다. 내가 담당 교수님 조교로서 매뉴얼을 익히고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과제 기한이 한참이나 지나서, 심지어 강의 전날 늦은 밤에 연락을 주면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주전에는 정말 좀비 그 자체였다. 그러나 설치 과정의 에러 내용을 보아하니 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여서 빨리 답변해 주었다.

오후 11시 즈음해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아빠와 전화통화를 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먼저 한 내 자신이 기특하다.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이 방. 침대에서 떨어지기 싫은데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한밤중이 되어서야 이 방에서 푹 쉴 수 있다. ‘안녕~’하고 인사해야 하는데 룸메가 없어서 입을 열 수 없었다. 최근에 기적적으로 참은 과자를 향한 욕구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오늘은 과자 자판기에서 프링글스를 하나 사왔다. 그냥 좀.. 약간, 아니 좀 많이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짹짹 감자칩이 필요했다 라는 핑계로. 하지만 프링글스는 느끼해서 얼마 먹지 못했다.

룸메이트가 오기 전에 편하게 샤워하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매일 샤워 2번. 신경성 알레르기, 알코올 알레르기, 약간의 아토피가 있는 나로서는 잦은 샤워는 내 피부에 좋지 않지만 2번의 샤워를 안 할 수가 없다. 아침에는 잠도 깼 겸 개운하게 샤워를 해야하고 저녁에는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쓰고 왔으니 밤 샤워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언니의 말에 백번 동의하기 때문이다. 저녁샤워 때는 바디로션은 생략하고 바디미스트를 뿌린다. 그래야 잠자리에 누울 때 내 몸에서 올라오는 향기에 기분이 좋다 때문이다. 평소 같았으면 바디오일로 다리를 마사지하고 자야하는데 일기를 쓰느라 시각이 너무 늦었다. 13일 오전 2시 50분이다. 지금 눈감고 누워도 또 20년의 버릇, 눈감고 소설쓰기가 진행된다면 최소한 30분은 뒤척일 게 뻔하다. 게다가 룸메이트는 요즘 중국드라마에 빠져서 자기 전에 꼭 중국드라마를 보는데 금요일 공강이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드라마를 보느라 우리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있다. 새벽 3시가 넘었다. 이제 일기를 마무리 하고 얼른 눈을 감아야겠다. 내일, 아니 이제 오늘도 매우 바쁜 하루가 되겠지. 2년 후, 2018년에는 기념적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라며 2016년 5월 12일 일기 안녕-.